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인생이야기와 손자녀 양육경험

Poor Custodial Grandparents' Life Story and Care-giving
Experiences of Their Grandchildren

오경석(Oh, Kyung Seuk)*

본 연구는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인생이야기와 손자녀 양육경험을 살펴 보았다. 8명이 연구대상자였으며, 심층면접과 참여관찰법이 연구방법으로 이용되었다.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인생이야기를 살펴본 결과 아동기의 경험으로는 시작부터 불행한 인생, 교육기회 박탈의 차별적 경험이 특징이었다. 청/중년기 경험의 두드러진 주제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회한이었다. 노년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주요한 주제였다.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에서 나타난 주제는 비자발적 양육책임, 고난의 대물림, 가족지지의 부재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생이야기와 손자녀 양육경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는 가족 중심적 가치관,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지, 희생을 통한 자기 확인을 바탕으로 손자녀 양육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아동기 때의 기본적 신뢰감의 중요성, 경제적 어려움의 경험, 지역사회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 자신의 희생을 통한 자기 확인을 후속 연구를 위한 주제로 제안하였다.

주제어: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 인생이야기, 손자녀 양육경험, 질적 연구

* 제1저자(교신저자):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ksoh@halla.ac.kr)

I. 서론

본 연구의 두 주제는 저소득층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과 인생이야기이다. 먼저 저소득층 조손가족의 손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연구는 일천하기 때문에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연구는 외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로, 한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주된 연구경향은 조부모와 손자녀의 가족 관계에 관한 것이거나, 조부모의 양육이 손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다(김혜선, 2004; 배지희, 노상경, 권경숙, 2008; 서혜석, 2005; 송유미, 이운형, 2009; 양순미, 임춘식, 오윤자, 2008; 유민지, 이기숙, 2002; 이미숙, 2008; 이선형, 이경림, 임춘희, 2009; 이영숙, 2004; 이영숙, 박화운, 2000; 이현주, 2007a, 2007b; 이화영, 2006; 정동하, 2009; 최혜지, 2006).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이 가족 내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손자녀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그 변인들은 무엇이며 또한 각 변인들의 영향 정도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이다.

또 다른 연구경향은 손자녀 양육에 대한 조부모의 경험에 관한 것으로, 조부모의 부정적 경험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대다수이다(권인수, 2001; 김미혜, 김혜선, 2004; 김은주, 서영희, 2007; 김혜선, 2005; 배진희, 2007; 서현, 2009; 서홍란, 김양호, 2009; 장희선, 김윤정, 2008; 최혜지, 2008; 한경혜, 주지현, 정다점, 2009; Dowdell, 2004; Dowdell & Sherwen, 1998; Kelly, Yorker, & Whitley, 2001; Roithmayer, 2001; Smith & Dannison, 2002). 그러나 조부모의 부정적 양육경험 뿐 아니라, 긍정적 양육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연구결과들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김오남, 2007; 김유미, 김명희, 정여주, 2008; 박경애, 2007; 이미영, 2007; 이현주, 2007c; 한경혜, 주지현, 이정화, 2008; Burton, 1992; Jendrek, 1994; Kennedy & Keeny, 1998; Neugarten & Weinstein, 1964).

이러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와 함께, 본 연구에서 중요한 연구방법으로 사용된 인생이야기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이 필요하다. 인생이야기라는 연구방법은 외국에서 1980년대 이후로 관심이 다시 높아지기 시작하였으며, 주로 성인의 자아정체감과 생성감(generativity)을 연구하는데 일부 학자들이 사용해왔다(Cohler, 1982; Howard, 1991; McAdams, 1988, 1993, 1996a, 1996b). 심리학자들은 성인들은 그들의 재편성된 과거(reconstructed past), 인식된 현재(perceived present), 그리고 기대되는 미래(anticipated future)를 통합하는 이야기를 만들고 내

면화함으로써 자신들의 분산된 삶을 이해한다고 말한다(Cohler, 1982; Howard, 1991; Kenyon, 1996). 특히 McAdams(1988, 1993, 1996a, 1996b)는 인생이야기는 무대(settings), 장면(scenes), 배우(characters), 줄거리(plots), 그리고 주제(themes)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기 자신을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의 하나라고 하였다. 또한 1990년대 중반 이후 인생이야기를 노년학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으며, 주로 병약한 노인, 자서전, 지혜 등과 같은 연구 주제에 사용되고 있다(오경석, 2002; Kenyon, 1996; Kenyon & Randall, 1997; Kenyon, Clark, & de Vries, 2001; Schroots & Birren, 2002).

본 연구의 첫 번째 필요성은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을 조부모의 인생이야기와 접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주된 연구경향은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을 '현재'의 사건으로 해석하고, 양육경험에 대한 여러 가지 변인과 결과에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연구경향에 대한 비판적 시도로서 한경혜 등(2009)이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사회적 배제 경험과 적응을 생애과정 관점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시도는 조부모의 현재 손자녀 양육경험이 조부모와 그 자녀, 그리고 손자녀와의 가족관계의 여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한경혜 등(2009)의 연구와 같이 인생이야기를 통해서 노인의 삶을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한 렌즈를 갖고 파악하고자 하며, 현재의 손자녀 양육경험과 조부모의 인생 여정을 접목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필요성은 본 연구가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연구의 후속 연구가 된다는 것이다(김미혜, 김혜선, 2004; 김은주, 서영희, 2007; 김혜선, 2005; 서현, 2009; 최혜지, 2008; 한경혜 등 2009). 조부모의 부정적인 손자녀 양육경험에 집중한 연구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조손가족의 조부모 손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조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사회적 배제 경험, 우울증과 같은 것에 집중되어있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조부모의 부정적 양육경험이 보고 되고 있다(김은주, 서영희, 2007; 서현, 2009; 최혜지, 2008; 한경혜 등, 2009).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에 대한 연구가 일천한 우리나라에서 본 연구는 후속연구의 일환이 된다.

본 연구의 세 번째 필요성은 질적 연구방법을 택한 것에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연구는 양적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양적연구는 다양한 양육스트레스와 관련된 변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선, 2005; 이선형 등, 2009; 최혜지, 2008). 그러나, 이러한 양적 연구에 더하여 최근 몇 년 사이에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들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

(김유미 등, 2008; 김은주, 서영희, 2007; 서현, 2009; 서흥란, 김양호, 2009; 이현주, 2007c; 장희선, 김윤정, 2008; 한경혜 등, 2009). 물론 질적 연구 결과도 부정적 손자녀 양육경험을 보고하고 있지만, 이에 더하여 긍정적 경험을 좀더 심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질적 연구를 통한 조부모의 부정적 손자녀 양육경험으로는 건강의 악화, 경제적인 문제, 손자녀와의 관계 변화 및 손자녀의 학업과 교우관계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성인자녀로부터의 지원 미비, 사회적 활동의 제한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조부모들은 어떻게든 손자녀 양육을 감당하고 있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겪는 숙명'이지만 '사랑스러운 손자녀를 돌본다는 보람과 애정'의 양가감정을 겪으며, '앞날이 걱정'되지만 '위기상황을 넘기고', '살고자 애씀'으로써 나중에는 '보람을 느끼고', '고통만큼 성숙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긍정적 양육경험이 보고되고 있다(김유미 등, 2008; 이현주, 2007c). 긍정적 양육경험이 양적 연구방법으로는 적극적으로 제시되지 못했던 점을 인지하면서, 본 연구는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을 질적 연구를 통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부정적 경험뿐만 아니라, 긍정적 양육 경험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과 절차

본 연구에서는 10세 미만의 손자녀의 일차적 양육을 1년 이상 담당하는 조부모를 연구참여자로 한정하였다. 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을 찾기 위하여 경기도와 강원도의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들을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소개 받았다. 처음에 소개 받은 노인은 경기도 6명, 강원도 5명이었으나, 참여노인의 개인적 이유와 심층면접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5명을 제외하고, 끝까지 본 연구에 참여한 8명이 최종 연구대상이 되었다. 경기도와 강원도 각각 4명씩이었다.

본 연구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행해졌으며, 8명의 노인에 대한 면접은 본 연구자가 직접 그들의 집을 찾아가서 이루어졌다. 각 면접은 한번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반까지 각 참여자마다 2회씩 이루어졌고, 면접의 내용은 녹취를 하였고, 이 후에 녹취된 내용을 전사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참여자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표 1〉 참여자의 특징

사례	성별	연령	배우자유무	손자녀유형	손자녀연령	양육기간	양육동기
1	여	67	무	친손자(1명)	6세	2년	아들가출, 이혼
2	여	72	무	친손자(2명)	7, 10세	4년	아들이혼, 재혼
3	여	67	무	친손자(2명)	4, 5세	1년	아들별거
4	여	65	무	친손자(1명)	6세	3년	아들이혼, 사망
5	여	69	유	친손자(1명)	6세	3년	아들가출, 며느리가출
6	여	72	무	친손자(2명)	6, 9세	2년	아들파산, 이혼
7	남	71	무	친손자(1명)	6세	4년	아들파산, 며느리중병
8	남	68	유	친손자(2명)	3, 5세	2년	아들이혼, 재혼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마다 각각 2회에 걸친 면접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참여 관찰법(participant observation)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참여관찰법은 또 다른 연구자에 의한 독립적 연구방법이 아니라, 본 연구자가 심층면접 과정에서 참여관찰에 대한 의지를 갖고 보조적 연구방법으로 시도된 것이다. 그러나 각각 2회에 걸쳐 각 참여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면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면담시 각 가정에서 참여자의 손자녀 양육의 실제 생활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참여관찰을 통해서 새롭게 나타나는 질문과 주제를 통해서 심층면접의 연구과정을 수정해 나갔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의 면담은 각 참여자마다 2차에 걸친 심층면접으로 이루어졌다. 1차 면접은 참여노인의 인생이야기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생이야기 방법은 McAdams(1988)가 개발한 인생이야기 방법으로, 각 연령기(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때 있었던 좋았던 경험(high point or 'peak' point)과 어려웠던 경험(low point or 'nadir' point)을 이야기 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8가지 질문을 한 후에, 인생의 전환점 경험('turning point' experience)과 가장 오래된 기억(earliest memory)에 대한 질문을 하여 총 10개의 질문을 기초로 하였지만, 참여노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이야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2차 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semi-structured interview)과 개방적 질문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반구조화된 질문은 선행연구를(김은주, 서영희, 2007; 서홍란, 김양호, 2009) 참고하여 "손자녀 양육의 동기," "손자녀 양육의 어려움," "손자

녀 양육의 보람,” “손자녀 양육의 의미,” “가족에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면담을 시작하되 참여자가 대화내용을 이끌어 가도록 하였으며 개방된 질문과 응답으로 면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3. 자료 분석방법

조부모의 인생이야기와 양육경험에 대한 면접과 참여관찰 내용은 3단계에 걸쳐 분석되었다. 녹취된 내용을 전사한 결과 면접이 각 참여자마다 2회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각 분석대상자 당 17쪽에서 30쪽이 되었다. 첫째, 각 면접대상자의 인생이야기와 손자녀 양육경험 자료를 여러 번 읽어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작업 후에 면담내용을 대변하는 의미를 찾고자 하였으며, 이렇게 나타난 의미를 단어나 주제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둘째, 이렇게 나타난 단어나 주제를 주제묶음으로 묶어나가는 것이었다. 셋째, 이렇게 구별되어진 주제묶음을 유목화 또는 대주제로 묶었으며, 조부모의 인생이야기와 양육경험을 처음 전사된 내용을 통하여 확인하고 재조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예를 들면 “시작부터 불행한 인생”이란 대주제나 유목화는 “처음부터 꼬인 인생, 구박덩이, 불행한 어린시절”과 같은 주제묶음으로부터 도출 되었다. “처음부터 꼬인 인생”이란 주제묶음은 “첩자식, 어머니 혼자 자식 부양”으로 부터, “구박덩이”란 주제묶음은 “구박, 많이 맞고 성장”으로 부터, “불행한 어린시절”이란 주제묶음은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 입에 풀칠할 것도 없던 시절”과 같은 단어와 주제로부터 나온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과 해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2차 면접 후반부에 개별적으로 참여자들의 확인 과정을 거쳤으며, 참여노인들을 소개해준 관련자들과의 면담과 자료를 통해서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거쳤다.

Ⅲ. 결과 및 해석

1. 인생이야기

저소득층 조부모의 인생이야기에서는 인생의 부정적인 측면이 주요 주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은 드러나지 않았다. 저소득층 조부모의 아동기 때 인생이야기의 특징은 자신의 인생을 시작부터 불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교육기

회의 차별적 경험을 말하고 있다. 청/중년기 때의 경험으로는 자신에 대한 자괴감과 자식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하는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회한이 특징이었다. 노년기 때의 주된 주제는 자신의 평생에 걸친 가난과 자식세대의 빈곤에 관한 것이었다.

1) 시작부터 불행한 인생

저소득층 조부모의 인생이야기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아동기 때에 좋았던 경험은 거의 전무하며, 어려웠던 경험이 주를 이룬다는 것이다. 아동기 때의 행복했던 기억이나, 축복을 받은 인생이라는 것이 전혀 없이 어렸을 때부터 불행한 환경 속에서 자랐던 기억이 인생 전반의 배경과 기조(tone)로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생성감이 높은 노인의 특징 중 하나는 아동기에 대한 행복과 인생의 축복에 있음을 언급한 연구(오경석, 2002; McAdams, Hart, & Maruma, 1998)들과 생성감이 낮은 노인이 보인 불행한 아동기에 대해 언급한 연구(오경석, 2002)와 같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의 인생출발을 ‘불행한 인생의 시작’으로, ‘구박덩이’, ‘불행한 어린시절’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야 어렸을 때부터 구박덩이였지 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쫄망쫄망하게 많은 애들 가운데서도 나는 특히 구박만 죽어라고 받았어. 내가 뭐 특별히 잘못된 것도 없는데 무조건 일만 나면 내가 찍혔지. 집안에서 샌 바가지가 밖에서는 대접받나. . . . 인생이 처음부터 꼬였어.”

(조부모 3)

“소위 나는 첩자식이었거든. 첩자식인데다 딸로 태어났으니, 뭐 더 이상 말할게 있어. . . . 큰어머니와 할머니가 나를 지렁이 취급하듯 했으니까. 불행한 인생의 시작이지.”(조부모 1)

2) 교육기회 박탈의 차별적 경험

아동기 때 경험의 또 다른 내용은 교육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교육기회의 박탈에 대한 언급은 현세대 노인들이 전쟁, 가난, 남녀차별적 유교문화 등을 시대적으로 경험하였다고 하는 다른 연구결과와 같았지만(강유진, 한경혜, 2002; 오경석, 2002; 한경혜 등, 2009), 저소득층 조손가족 노인들은 이러한 경험을 다른 사람과의 차별적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른 노인들도 전반적으로 교육기회의 박탈을 경험하는 시대였지만, 자신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교육기회의 박탈을 더

차별적으로 언급하였다.

“왜정 때, 해방 후 혼란기, 6.25 등 사회도 어려웠고. . . . 그때는 여자는 공부를 당채 시키지를 않았으니까. 국민 학교라도 갔으면 까막눈은 면했을 텐데, 집이 가난하고, 애들은 많으니 학교를 갈수가 있었다. . . . 나와 같은 처지였지만, 옆집 가스나는 그래도 학교 물은 먹었지. 같은 친군데 나만 안보내주니 더 학교에 가고 싶었지.”(조부모 2)

“딴 애들은 그래도 학교 간다고 책 보따리 매고 가는 것 보면서, 나는 소 물고 나무하러 가야했어. 우리 아버지가 머슴살이 했었으니까, 주인집에서 얻어먹고 했으니까.”(조부모 8)

3)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회한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들의 청/중년기 때의 두드러진 경험 중 하나는 그들이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 책임을 지지 못하였다고 후회하는, 즉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회한은 아동기 때의 불행했던 인생출발과 교육기회의 박탈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과 연결되어 있으며, 청/중년기를 거치면서 연속되는 ‘인생의 실패’로 나타났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자괴감은 또한 자식에 대하여 충분히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자식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중요한 주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성감이 낮은 노인의 자신에 대한 수치심과 자식에 대한 죄책감을 언급한 다른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오경석, 2002). 인생의 전환점에 대한 답변에서도 인생의 전환점이 특별하게 없었던가(오경석, 2002), 또는 전환점이 있더라도 결국은 실패로 귀결되고 말았다는 것에 대한 회한이 뚜렷한 주제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일생동안 게으르지 않았어. 몸이 깨져라 일은 하는데 돈은 안 붙어. 죽어라고 일은 하는데 얼마다 깨박살나니, 도저히 나도 나를 못 믿겠고, 주위 사람들도 나를 신뢰를 안했습니다. 여기 저기 돈은 빌려다가 갚지도 못하고. 양계도 해봤고, 돼지도 키워봤고, 그런데 그때 마다 파동이 나니. . . .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 . . 전환점은 뭐, 결국은 실패로 끝났는데.”(조부모 7)

“돈이 없으니, 사람이 여러 가지로 못쓰게 되었지요. 돈이 없으니 자신감도 없고, 어디 가서 큰소리도 못 치겠고. 자식들에게 뭘 해준 게 있어야지 지금 자식들 볼 낫도 있지. . . . 젊은 시절 술 먹고, 여기 저기 싸움이나 하고, 마누라 두들겨 패고, 자식들 때리고 했던 것이 지금은 무척 후회되지요. 남들처럼 만큼은 아니지만 웬만치만 해주었어도, 애들이 잘 되었을 텐데. 아들이 이혼한다고 할 때 뭐라고 못하겠더라구요.”
(조부모 8)

4) 경제적 어려움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들의 노년기 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강유진 2003; 한경혜 등, 2009; 오경석, 2002). 저소득층 조부모에게 경제적 빈곤은 현재 이들의 삶을 특징지을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에 걸친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생애과정을 통한 빈곤경험을 언급한 한경혜 등(2009)의 연구결과와 같이 저소득층 조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이들의 인생 전반에 걸친 가장 커다란 주제로서 어렸을 때의 가난이 청/장년기를 거쳐 노년기까지 이어져 오는 빈곤의 연속선상에 있다.

“아버지 때도 그랬고, 내 때도 그렇고. 자식들도 마찬가지로 이놈의 돈이 웬수지요. 마음 한번 편하게 돈을 써보지 못했으니깐요. . . .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들이 파산해서 도망 다닐 때였지요. 사채업자들 들이 닥치지, 휴 뭐라고 말해요. . . . 지금도 돈만 있으면 손주 새끼들에게 내 나름대로 잘 해줄 수 있을 것 아니요.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일생을 가난에서 못 벗어나니, 어찌 합니까.”(조부모 6)

“현재 가장 어려운 것은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 모든 것이 다 힘드네요. 나도 평생 어렵게 살았지만, 그래도 자식 대는 나아지기를 바랐는데. . . . 아들이 딴 여자와 바람나서 가출해 버리고, 애들 엄마도 나가버리니. 내가 무슨 힘으로 손주를 키울지 앞이 깜깜합니다. 돈도 하나 없으니.”(조부모 5)

2. 손자녀 양육경험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에서 나타나는 몇가지 주요 주제는

비자발적 양육책임, 고난의 대물림, 가족지지의 부재였다.

1) 비자발적 양육책임

저소득층 조손가족 노인의 손자녀 양육경험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는 본인은 손자녀 양육을 감당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본인 스스로도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손자녀를 어쩔 수 없이 맡아 양육하게 된 것을 이야기 하였다. 생성감이 낮은 노인의 손자녀 비자발적 양육경험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오경석, 2010).

“아들이 며늘애하고 같이 안 살아요. 아들이 사업 실패하면서 각자 따로 데로 가서 삽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라고 손주들 키우고 싶겠소. 내 몸 방신하나 하기 힘든데. 이 어린 것들 어떻게 키워야 할런지. . . . 할 수 없이 맡았지.”(조부모 3)

“아들이 이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니 누가 키워요. 애를. 내가 어쩔 수 없이 키워야지. . . . 그래도 하나 밖에 없는 내 핏줄이니 내가 키워야지요.”(조부모 4)

2) 고난의 대물림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스트레스의 특징 중 하나는 자신들의 가난과 고난이 자신들의 자녀 세대, 심지어 손자녀 세대까지 계승되고 심화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현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보다도 더욱 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가난과 고난의 대물림이다. 특히 자신의 선조 때는 잘 살던 집안이 자신 때에 와서 기울어지고, 가족사(family history)의 고난이 계승되고 심화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한경혜 등, 2009).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애들이 잘못될까봐 그것이 가장 힘들지요. 그래도 남은 희망이라고는 저 어린 것들 뿐인데, 저 애비어미도 없으니. . . . 요즘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 때 입니까. . . . 나는 힘들었지만, 저 애들은 제대로 살아야 될텐데. 그런데 요즘은 가난의 대물림이잖아요. 애들 스스로 일어서기까지는 돌봐야 되는데요.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조부모 2)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만 해도 우리 집안이 괜찮았어요. 전답도 많았고. 남 부럽지 않았지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다 말아먹었죠. 처음에는 양조장 사업한다고 시작해서부터. 하는 것마다 다 실패했지요. . . . 이런 어려움이 자식이나 손주에게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식마저도 빚더미에서 벗어나질 못하니.”(조부모 7)

3) 가족지지의 부재

조손가족 노인의 손자녀 양육경험에서 두드러진 또 하나의 주제는 가족의 지지가 없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적은 것이 문제점이지만(김미혜, 김혜선, 2004, 김혜선, 2005), 특히 가족으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정신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커다란 어려움이었다.

“다른 애들도 다 어려우니, 나를 도와줄 여력이 있다. 다른 건 몰라도 제발 내 속이나 안 썩이면 그나마 다행이지. 둘째 아들에게서 전화만 오면 가슴이 벌렁벌렁해. 또 무슨 사고나 안쳤나하고. 친지들도 다들 어렵고. 돈 좀 있는 사람은 발걸음 끊었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도움이 없으니. 앞으로가 더 걱정이야.”(조부모 1)

“아들 하나 있는 것 집 나가버렸지. 애들 어미도 나가 버려서 감감 무소식이야. 애만 나아 놓으면 뭐해. 죽으나 사나 내가 애들 뒤치닥꺼리 해야 되는데,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고. 친척들도 우리가 어려우니까 다 모른 척 해.”(조부모 5)

3. 손자녀 양육경험을 통한 삶에 대한 적응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는 불행한 삶의 전철을 보여주는 인생이야기와 어려운 손자녀 양육경험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이들의 현재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은 가족 중심적 가치관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지를 통한 현실 적응이었다. 가족 중심적 가치관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지지라는 주제는 한경혜 등(2009)의 연구결과와 같다. 또 다른 적응방법은 희생을 통한 자기 확인이었다. 자신이 현재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가치를 부가하고 있었다. 특히 희생을 통한 자기 확인은 저소득층 조손가족 노인의 인생이야기와 양육경험에서 이들의 삶의 자리를 찾게 해주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1) 가족 중심적 가치관

조손가족 노인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핏줄'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 때문이다. 조부모에게 있어 유교적 가치관인 '장손', '씨', '대를 잇는 것'은 매우 중요한 책임감으로 다가서며, 이러한 책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자신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대를 잇는 일에 그나마 나름대로의 면죄부를 주고 있었다.

“누구에게 맡깁니까? 내 핏줄인데.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어떻게든지 감당해야지요. 죽으나 사나 내가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죽어서 조상들 뵈는 때 그나마 얼굴이라도 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조부모 7)

“친손자라고 단 하나입니다. 아들도 죽고. 이 애가 장손인데 어떻게든 잘 커나가게 도와주어야지요. . . . 그래도 내가 할 일 아닙니까.”(조부모 4)

2) 지역사회 사회의 지지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가족의 지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가족의 지지는 없었지만, 그래도 지역사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 지지를 얻음으로써 현재의 어려운 생활환경을 이겨나가고 있었다. 특히 종교단체나 지역사회 복지기관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중요한 적응방법이었다.

“그나마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도와줄 가족은 없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여러 사람이 정기적으로 찾아도 오고, 반찬이나 필요한 것도 갖다 주고. 요번 설에도 한가득 가져다주었지요.”(조부모 1)

“복지관에서 연결시켜 주었어요. 애가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를 잘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님이 병원을 소개시켜주어서 애가 금방 나아졌어요. 얼마나 고마운지요.”(조부모 3)

3) 희생을 통한 자기 확인

조손가족 조부모는 자신 한 몸이 희생하여 가족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있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희생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세대 여성들이 희생하지 않는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였다.

이혼이나 가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변해버린 세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었다.

“우리 때는 무조건 순종하고 아버지가 하라면 무조건 하던 때지요. 부모의 희생이 없이 어찌 자식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나요. 요즘 세대는 전혀 참고 희생할 줄 몰라요. 그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무조건 뛰쳐나가고 마니까요. 우리는 그 고생 고생했는데. . . . 아들도 나가고. . . . 며느리도 뛰쳐나가고. 세상 말세입니다.”(조부모 5)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하는 것 누가 알아주겠어요. 나중에 손주나 알아줄래나. 알아달라고 이 고생하는 것도 아니지만요. 나만이라도 이 집안이 완전히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고 있어야지요.”(조부모 8)

IV. 논의 및 결론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인생이야기의 주요 주제는 시작부터 불행한 인생, 교육기회 박탈의 차별적 경험,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회한, 경제적 어려움이었다. 노인의 생성감과 인생 이야기에 관한 연구 결과(오경석, 2002)에 의하면 생성감이 낮은 노인들의 인생 이야기 특징은 가정에서의 구박, 교육기회 박탈, 자식에 대한 실망,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회한, 경제적인 어려움,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 상실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저소득층 조손가족 노인의 인생이야기는 생성감이 낮은 일반 노인들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기도 하지만 다른 면도 나타내고 있다. 가정에서의 구박, 교육기회 박탈, 자신의 무능력에 대한 회한,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네 가지 주제에서는 상당한 일치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구박도 ‘시작부터 불행한 인생’으로 교육기회 박탈도 ‘교육기회 박탈의 차별적 경험’으로 심화된 불행한 아동기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생성감이 높은 노인의 특징 중 하나인 행복한 어린 시절, 인생에 대한 긍정적 판단 같은 것이(오경석, 2002) 조손가족 조부모의 인생이야기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아동기의 기본적 신뢰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하겠다(Erikson, 1982). 아동기 때 가장 중요한 심리사회적 주제인 기본적 신뢰감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 전반에 걸친 배경과 밑거름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조부모의 양육을 받고 있는 손자녀의 기본적 신뢰감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들이 언급한 경제적 어려움은 저소득층 가정이라는 점에서 조부모-부모-손자녀 세대에 걸쳐서 중요한 특징이었다. 빈곤의 대물림 현상과 이에 대한 조부모의 불안과 걱정은 이들의 인생 전반에 걸쳐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것을 알 수 있다.

생성감이 낮은 노인들의 특징 중 하나인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 상실이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인생 이야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것은 흥미로운 것으로 이것은 조손가족 조부모의 적응방법에서 해석의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삶이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특히 '희생을 통한 자기 확인'과 같이 자신의 삶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것이다. 현재의 삶에 무조건 비판적 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상황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삶에 대한 긍정적 가치부여와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고양이가 필요하다.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은 비자발적 양육경험, 고난의 대물림, 가족지지의 부재로 나타났다. 생성감이 낮은 노인의 손자녀 양육경험을 연구한 결과는 비자발적 양육경험, 심한 양육스트레스, 가족에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 불안한 미래, 자기 돌봄의 부재, 사회적 지지의 부재였다(오경석, 2010). 저소득층 조손가족 노인의 손자녀 양육경험 중 비자발적 양육경험과 고난의 대물림은 생성감이 낮은 노인의 경험과 비슷하다. 그러나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경험 중 가족 지지의 부재가 중요한 주제로 언급됨으로써, 이들에게 있어 가족의 지지가 없는 것이 손자녀 양육경험의 매우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신에 가족의 지지는 없지만 지역사회와 사회적 지지를 나름대로 이용하여 현실에 적응하고 있는 모습은 종교단체나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저소득층 조손가족 노인의 어려운 손자녀 양육경험을 지탱해주는 것으로 나타난 가족 중심적 가치관, 지역사회와 사회적 지지는 한경혜 등의 연구(2009)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또 다른 조손가족의 적응전략인 '정상가족 따라가기'는 본 연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상가족 따라가기'보다는 '희생을 통한 자기 확인'이 주요한 주제로 드러났다.

손자녀 양육경험과 관련하여 다른 연구(김미혜, 김혜선, 2004; 김혜선, 2005; 장희선, 김윤정, 2008)에서 언급된 건강 악화, 손자녀의 학업과 교우관계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같은 것이 본 연구에서는 특징적인 주제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연구대상자가 아직 비교적 젊은 노인이고 손자녀의 연령이 어린 이유일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다. 또한 인생 이야기와 양육경험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범주화하는 작업에서 타 연구와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범주로 그려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아동기 때의 기본적 신뢰감의 중요성, 경제적 어려움의 경험, 가족 지지를 대신하는 지역사회와 사회적 지지의 중요성, 자신의 희생을 통한 자기 확인과 같은 것은 향후 연구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유진(2003). 한국여성노인들의 노년기 적응과 노년기 삶의 모습에 대한 질적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3), 131-144.
- 강유진, 한경혜(2002). 한국여성노인의 생애사 분석을 통한 노년기 삶의 이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3), 99-126.
- 권인수. (2001).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부담감과 사회적 지지. **아동간호학회지**, 6(2), 212-223.
- 김미혜, 김혜선. (2004).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노년학**, 24(3), 153-170.
- 김오남. (2007).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의 부담과 보상감. **한국노년학연구**, 16, 59-84.
- 김유미, 김명희, 정여주. (2008).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접근. **사회복지연구**, 38, 123-163.
- 김은주, 서영희. (2007).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실제에 관한 질적연구. **아동학회지**, 28(2), 175-192.
- 김혜선. (2004). 조손가족 조부모의 양육태도와 양육스트레스가 손자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8, 85-117.
- (2005). 농촌과 도시 지역 손자녀를 전담 양육하는 저소득층 조부모의 정서적 고통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8, 341-378.
- 박경애. (2007). 사회적 지지가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보상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2(3), 25-45.
- 배지희, 노상경, 권경숙. (2008). 조부모의 영유아기 손자녀 양육 현황 및 양육 지원에 대한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379-410.
- 배진희. (2007).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요인 - 양육형태별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9, 67-94.
- 서현. (2009). 농촌지역 조부모-손자녀 가정 유아의 양육에 대한 조부모의 어려움.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13-27.
- 서혜석. (2005). P.E.T.를 활용한 집단 프로그램이 손자녀 양육 조부모의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효과. **노인복지연구**, 27, 279-302.
- 서홍란, 김양호. (2009). 조손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과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대한 질적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1), 267-296.

- 송유미, 이윤형. (2009). 조손가족 조부모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기능 간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3**, 111-134.
- 양순미, 임춘식, 오윤자. (2008). 농촌 조손가족 조부모들의 손자녀에 대한 비용-보상적 가치관이 손자녀 양육 이후의 생활만족 변화에 미치는 영향. **농촌사회**, **18(2)**, 145-178.
- 오경석. (2002). 노인의 생성감과 인생이야기. **한국노년학**, **22(2)**, 113-129.
- (2010). 재미한인노인의 생성감과 손자녀 양육경험.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2)**, 1-21.
- 유민지, 이기숙. (2002). 노년기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한국노년학**, **21(3)**, 91-109.
- 이미숙. (2008). 국내 장애아 조부모 역할 증진에 대한 고찰. **중복·지체부자유 연구**, **51(3)**, 143-166.
- 이미영. (2007). 조손가정의 형성과정 및 생활실태, **복지행정논총**, **17(1)**, 203-230.
- 이선형, 이경림, 임춘희. (2009).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을 중심으로 -. **한국가족복지학**, **14(4)**, 57-77.
- 이영숙. (2004). 청소년기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673-681.
- 이영숙, 박화윤. (2000). 유아기 손자녀가 기대하는 조부모의 역할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0(3)**, 211-232.
- 이현주. (2007a) 저소득 조손가족 아동의 성인아이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경로분석. **한국아동복지학**, **23**, 7-32.
- (2007b). 조부모 대리양육 아동의 장기위탁경험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8(6)**, 53-72.
- (2007c). 대리양육 위탁가정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과정-근거이론 접근방법으로-. **노인복지연구**, **37**, 361-392.
- 이화영. (2006). 조손가족의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32**, 327-355.
- 장희선, 김윤정. (2008). 농촌지역 조부모-손자녀가족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0**, 7-30.
- 정동하. (2009).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부모-조부모 친밀감 및 노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3)**, 29-49.
- 최혜지. (2006). 저소득층 조손가족의 조부모-손자녀 관계 결정모형에 관한 연구. **한**

- 국노년학, 26(3), 641-655.
- (2008). 조손가족 조부모의 우울의 실태와 작용기제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9, 122-149.
- 한경혜, 주지현, 이정화. (2008). 조손가족 조모가 경험하는 손자녀 양육의 보상과 비용, **한국노년학**, 28(4), 1147-1164.
- 한경혜, 주지현, 정다겸. (2009). 생애과정 관점에서 본 저소득층 조손가족 조부모의 사회적 배제 경험과 적응. **한국가족복지학**, 26, 87-122.
- Burton, L. M. (1992). Black grandparents rearing children of drug-addicted parents: Stressors, outcomes, and social service needs. *The Gerontologist*, 32(6), 744-751.
- Cohler, B. J. (1982). Personal narrative and the life course. In P. Baltes & O. G. Brim (Ed). *Life 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Vol. 4). New York: Academic Press.
- Dowdell, E. B. (2004). Grandmother caregivers and caregiver burden. *MCN, The American Journal of Maternal Child Nursing*, 29(5), 299-304.
- Dowdell, E. B. & Sherwen, L. N. (1998). Grandmothers who raise grandchildren: Across-generation challenge to caregiver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4(5), 8-13.
- Erikson, E. H. (1982). *The life cycle completed*. New York: Norton.
- Howard, G. S. (1991). Culture tales: A narrative approach to thinking, cross-cultur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American Psychologist*, 46, 187-197.
- Jendrek, M. P. (1994). Grandparents who parent their grandchildren: Circumstances and decisions. *The Gerontologist*, 34, 206-216.
- Kelly, S. J., Yorker, B. C. & Whitley, D. (2001). To grandmother's house we and stay: Children raised in intergenerational familie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7, 12-20.
- Kennedy, J. F. & Keeny, V. T. (1998). The extended family revisited: Grandparents rearing grandchildren. *Child Psychiatry Human Development*, 19, 26-35.
- Kenyon, G. M. (1996). The meaning/value of personal storytelling. In J. Birren, G. M. Kenyon, J. E. Ruth, J. J. Schroots, & T. Svensson (Ed). *Aging and biography: Explorations in adult development*. New York: Springer.

- Kenyon, G. M. & Randall, W. L. (1997). *Restorying our lives: Personal growth through autobiographical reflection*. Westport: Praeger.
- Kenyon, G. M., Clark, P., & de Vries, B. (Ed). (2001). *Narrative gerontolog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Springer.
- McAdams, D. P. (1988). *Power, intimacy, and the life story: Personological inquires*. New York: Guilford Press.
- McAdams, D. P. (1993). *The stories we live by: Personal myths and the making of the self*. New York: Morrow.
- McAdams, D. P. (1996a). Narrating the self in adulthood. In J. Birren, G. M. Kenyon, J. E. Ruth, J. J. Schroots, & T. Svensson (Ed). *Aging and biography: Explorations in adult development*. New York: Springer.
- McAdams, D. P. (1996b). Personality, modernity, and the storied self: A contemporary framework for studying persons. *Psychological Inquiry*, 7, 295-321.
- McAdams, D. P., Hart, H. M., & Maruma, S. (1998). The anatomy of generativity. In D. P. McAdams & E. de St. Aubin (Ed). *Generativity and adult development*. Washington: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Neugarten, B. L. & Weinstein, K. K. (1964). The changing American grandpar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6(2), 199-204.
- Roithmayer, S. (2001). *Emotional distress of grandmother raising grand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New York.
- Schroots, J. J. F. & Birren, J. E. (2002). The study of lives in progress: Approaches to research on life stories. In G. D. Rowles & N. E. Schoenberg (Ed). *Qualitative gerontology: A contemporary perspective* (2nd ed.). New York: Springer.
- Smith, A. & Dannison, L. (2002). Education educators: Programming to support grandparent-headed families, *Contemporary Education*, 72, 47-51.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poor custodial grandparents' life story and care-giving experiences of their grandchildren. 8 grandparents were selected and in-depth interview and participant observation method were used. They showed a miserable life from the birth and discriminative experience of the deprivat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as childhood nadir experiences. They showed the regret for their inability as youth/midlife low point and financial difficulty as old life nadir experiences.

In terms of care-giving experiences of their grandchildren, they showed non-voluntary care-giving, anxiety for the generational continuation of hardship, and lack of familial assistance.

Poor custodial grandparents also used family-centered value, community-based social assistance, and self-assurance through their sacrifice as their adjustment strategy. Several research themes such as the importance of basic trust in childhood, the experience of financial difficulties, the importance of community-based social assistance, and self-assurance through their sacrifice were suggested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Poor custodial grandparents, Life story, Care-giving experience, Quality research methodology

2010. 09. 29. 투고 : 2010. 11. 16. 수정원고접수 : 2010. 12. 08. 최종게재결정